



20초의 여유

최승원/의협신보 기자

한 국 경제에 정통한 독일 경제학자 홀거 하이데(브레멘대학·경상학부)교수는 '노동사회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노동자와 대중동원의 진정한 원인은 한국 노동자의 피해의식·두려움·패배감이라고 일갈했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자처하며 몇몇 외국학자에 의해 후발 개도국 근대화의 전형적인 예로 칭송받던 것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에게 하이데교수의 지적은 듣기 불편함을 떠나 기본마저 상하게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들어 아침 출근길 전철역에서 필자는 '바쁜 사람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한쪽은 비워주세요'란 풋말을 들은 녹색재킷을 입은 시민단체원들을 만나게 됐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질서문화 운동이라고 써있는 띠를 두르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인들로 구성된 이 질서확립 시민단체원들은 때론 걸어 올라가는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멍뭍고 서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호된 꾸지람을 내리기도 한다.

제법 다른 승차장보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가진 충무로역 중앙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서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여 초다. 만약 이 에스컬레이터 반대편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 올라가면 속도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재본 결과 15초정도 걸린다.

결국 서서 올라가는 사람에 비해 계단을 올라가는 수고와 서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통로 한쪽만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급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시간은 15초에서 많으면 20여 초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은 표정을 짓고 묵묵히 에스컬레이터를 급히 올라가는 직장인들

의 모습에서 하이데교수가 지적한 한국 노동자의 피해의식에 따른 강박적 행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은 나만의 과대망상인지 반문해 본다.

걸음이 불편한 사람이나 에스컬레이터의 편안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보다 20초에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같이 서두르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배려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최근의 위기들이 '빨리 빨리'와 '대충 대충'의 토양속에서 비뚤게 움직여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노동자의 불안감과 좌절감의 양분을 먹고 자란 우리 사회의 사생아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오늘도 자신들의 강박관념을 질서, 문화와 혼동하며 여전히 줄을 서라고 소리치는 질서확립자들을 뒤로한 채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서 올라가는 충무로 역은 어제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 나라 영화의 중심터 인지라 대중상 수상자의 사진과 이름이 한쪽벽에 붙어 있고 자연스런 동굴을 연상하게 하는 뽀족하고 까만 외벽들을 보며 처음 3호선과 4호선 지하철 개통에 맞춰 1구간 지하철 표를 끊고 친구들과 하루 종일 지하철 관광을 하던 어린 시절도 생각한다.

나는 오늘 회사에 20초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다행히 회사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만일 자신의 20초가 인류구원과 한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충무로역에서 환승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무로 역 한쪽 벽에 걸린 대중상 수상 작품과 배우를 한번쯤 보고 가라고 권유하고 싶다.

상을 수상하는 배우들의 모습은 선잠에서 덜 깨어난 아침,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충분할 정도로 촌스럽기 때문이다.